

목회자의 프락



이동균 목사
혜성교회 담임

요즘 시대의 외침이 새로운 노래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문화현상으로 K-Pop의 '골든, Golden'이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정확히 부를 정도이다. 한국 드라마의 감성과 절단 에니메이션의 시각적인 힘이 결합한 새로운 장르, 현대 사회문제와 청춘들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나 역시도 이 강렬한 저음과 고음역 대가 섞여 호소력 짙은 노래로 귀에 들릴 정도이니 젊은 세대들의 열광은 얼마나 다하랴. 기하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소수로 차별받는 불안인 여성들의 성공신화다. 아직도 유리천장이 무너져 여성들이 억울하고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꿈을 노래하기에 제3세계를 비롯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골든(Golden)의 가사를 보면 강렬한 감성들이 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전하였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분은 세상의 구원자다.'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변두리인으로 자포자기를 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도 빛나는 별이요, 골든임을 알았다. 자신과 이웃들이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골든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원래 빛이었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했다. 예수께서 너는 빛나는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셨다. 여성 스스로도 골든임을 믿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신위의 동네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며,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살 소녀와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린 여성이 나온다. 12살 소녀는 원인 모르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기에 예수님을 찾았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이에 12년간 출혈병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였다. 이 여성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 있었다. 자신을 몰라본 남성들은 말해줄 수 없는 슬막하는 장벽이었다. 세상의 높은 벽 앞에 섰다. 예수 앞에서 자신이 보였다. 그의 믿음은 웃음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골든이 되었다.

12살 소녀도 생명이 다하는 어둠의 순간과 외로움을 겪었다. 예수께서 이 소녀를 향해 '덜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신다. 이 소녀는 믿음으로 응답한다. 자신의 몸을 일으킨다. 막힌 숨을 내쉬며 골든이 된다. 두려움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믿음을 보이셨다. 믿음이 구원이다. 옴베 가슴을 치는 사람들도 보았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의 영

숨기지 말고 빛나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Golden이다-

리난다. 자신은 유령이고 혼자였다. 어둠과 앞 길이 보이지 않았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소용돌이를 갖고 있어도 언제나 혼자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를 잊었고, 왕같은 존재였으나 알지 못했다. 현실에서는 기절과 문제로 낙인 찍혔다. 이제야 무대에 서었다. 숨은 일을 끝이다. 원래 빛이었으니 빛을 발하겠다. 자신의 꿈을 믿을 수 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다.

나에서 우리로 장면이 바뀐다. '우리 올라가자.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난다. 우리 목소리를 높이자. 우리 찬란해 질 수 있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태어난 대로 빛이 난다.'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나아가 우리라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였다. 황금같은 가치를 느끼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자는 매력 있는 메시지이다.

사회적 메시지도 공감을 나눈다. 외로운 다수의 소수들이다. 청년세대들, 성소수자들, 사회적 낙오자들, 이민자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다양성과 차이들을 넘어서 모두 빛날 수 있다. 원래 빛나는 존재들이었지만 그 믿음이 없었다. 치유와 성장을 공유한다. 자기 긍정과 자신감의 회복, 함께 빛나자는 공동체를 향한 용의이다. 더 이상 숨거나 울크리지 말고 빛나는 자신을 드러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예수께 이 골든에 대해 들었다. 골우물가의 여인이 골든이었다. 당시 사마리아 여성으로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차별하고 있음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했다. 자신에게 예수께서 '물을 달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수께서 '내가 생수를 주리라' 그는 생수를 얻어 마실 자격이 있음을 알았다. 이를 알고 그는 동네

촌이 돌아오고,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으로 일어났다. 12세 소녀와 12년 출혈병 여성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어둠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빛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비추셨다. 이들은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일으켰다.

예수의 부활도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에 밝히고, 숨막히는 권력 앞에서 신자기를 지켰다. 하나님의 일으킨 발에서 결국 어둠을 이기시고 빛이 되었다. 불의가 정의를 덮을 수 없었다. 사람의 힘이나 제도가 무뎠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에 거러질 수 없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복음이고 골든이시다. 사회적 약자를 일으켜 주시고, 아프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소금이며 빛이다. 세상의 짙음을 막고 어둠을 물어내는 사람이 있다. 냄새나고 음침한 삶일 수 없다. 골든의 저음처럼 낮은 존재감, 외로움과 고통의 현실에 짓눌려 있을 수 없다. 산 위의 동네의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강한 목소리로 해방을 선포하고 희망을 나눠주어야 한다.

'골든'은 나와 우리 모두의 현재이다. 세상이 오늘 열망하고 회개하는 시대적 목표이다. 온몸 골든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불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앞서 빛나는 골든이었다. R. 나이퍼의 기록과 문화 모델에서 다섯 번째 골든 문화를 변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문화를 거부하거나 흡수되거나 갈라지지 않고 현재를 변형과 발전으로 추동해 나가야 하겠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볼 기회이다. 욕망을 실현하는 골든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Golden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음반

아티스트 : 마커스워십 | 기획 : 마커스뮤직 (한국)



마커스워십 2025 - Victory Through Surrender (CD)

항복을 승리로

뮤직 > 찬양 > 워십

복은 우리 안에 예수를 남겼습니다.

LIVE WORSHIP 20TH ANNIVERSARY
MARKERS WORSHIP 2025
항복을 승리로 / Victory Through Surrender

이번 앨범은 우리의 항복의 이야기, 우리 안에 키진 예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항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20년간 예배를 드려며 그 자리를 지켜 온 시간은 우리의 항복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항복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여러 모양의 항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출 17:11



11월이 되면 교회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로 단장된 강단이 눈에 띕니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단지 농작물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살펴보고, 이 절기에 어울리는 찬송가와 CCM 곡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과일과 여러 농작물들로 강단에 쌓아만 놓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드러지는 한 곡의 찬양을 더 바라시지 않

추수감사일에 어울리는 찬송가

1. 저 밭에 농부 나가 (찬송가 599장)

작사·작곡: F. A. Graves

이 찬송가는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D. Graves는 미국 복음주의 찬송 작곡가로, 농촌 사역을 하며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땅 흘리니...'라는 가사는 땅 흘린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F. A. Graves (1866~1927)는 미국의 복음주의 찬송가 작곡가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농장에서 일하며 자랐으며, 14세에 간질을 앓았지만 22세에 미네소타로 이주한 후 병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기쁨과 슬픔,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Exell의 음악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풍성한 화성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친숙하며, 그의 찬송은 오늘날에도 예배 속에서 깊은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산마다 불이 된다 (찬송가 592장)

작사: 이호운 / 작곡: 김성태

한국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이 찬송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단풍이 붉은 산과 들산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한 가사와 멜로디로 추수감사주일에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이 곡은 1970년대 후반, 이호운 사인이 단풍이 물든 산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던 중 영감을 받아 가사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작곡가 김성태는 이 시에 감동을 받아 한국적인 선율로 곡을 붙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추수감사주일에 자주 불리는 대표적인 계절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많은 CCM 혹은 워십곡들이 있습니다. 감사보다 더 큰 우리의 신앙고백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찬송 '저 밭에 농부 나가...'

했습니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1621년 미국 플리머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첫 수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나누었고,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고, 한국 교회도 이 전통을 받아들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곡식의 수확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 목자님들과 자의 삶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한 시간도 일 분 일 초도 없었을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져 좌절하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과 도전이 됩니다.

이후 그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며 찬송가 작곡을 시작했고, 총 43곡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저 밭에 농부 나가'는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찬양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자주 불리는 곡입니다. Graves의 찬송은 고난과 회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2.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가 589장)

E. O. Exell

이 곡은 단순한 수확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기쁨과 슬픔,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감사'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Exell은 수많은 찬송가를 편집하고 작곡한 인물로, 이 곡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E. O. Exell (1861~1921)는 미국의 찬송가 작곡가이자 편집자로, 1,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하거나 편집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 D. L. 무디와 함께 사역하며 복음 집회에서 사용할 찬송가를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는



이동영
미션리 편집장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총장 신혜란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